

호주, 이번엔 달걀 부족...상점선 1인당 2팩 판매 제한도

방사 환경 달걀 인기...추운 날씨에 공급이 수요 못 쫓아와 이상기후·물류난...병아리콩·상추·화장지·감기약도 부족

이례적인 추운 날씨와 생산 비용 증가, 일손 부족 등이 겹치면서 호주에서 달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상점에서는 1인당 판매 개수 제한까지 시행하고 있다.

3일 호주 ABC 뉴스와 일간 디오스트 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의 대형 슈퍼

마켓 체인 콜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객 1명당 달걀 2팩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 울워스는 아직 판매 제한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달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농장에서 생산이 감소하면

서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달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호주 소비자들이 방사 환경에서 자란 닭에서 나온 달걀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호주에서는 암탉들이 매일 최소 8시간을 야외에서 돌아다녀야 방사 환경에서 자란 닭으로 인정한다.

호주에서는 이런 방사 달걀이 유행하면서 지금은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방사 달걀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호주가 평년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방사 환경에서 자라는 닭의 달걀 생산이 줄어든 것이다.

멜버른 인근에서 방사형 달걀 농장을 운영하는 제이머 프라임씨는 "닭이 달걀을 최대로 낳기 위해서는 매일 15~16시간의 빛이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달걀 생산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겨울철에는 달걀 생산량이 20% 가량 감소하는데 방사 달걀 선호도가 올라갈수록 겨울철 달걀 품귀 현상은 더 강

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면서 농장들도 암탉을 줄여왔는데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문을 닫았던 식당들이 정상화되자 달걀 수요도 대폭 늘어나면서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물류난과 곡물 가격 인상으로 달걀 생산 가격이 오를 것도 원인이다.

울워스는 추운 호주의 날씨와 공급

망 문제, 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걀뿐 아니라 병아리콩과 렌틸콩, 상추, 화장지, 감기약 등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식료품 수출국인 호주에서는 올해 들어 이 같은 식료품 품귀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육계 부족을 겪었으며 지난 6월에는 홍수로 인한 양상추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현지 KFC가 햄버거에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도, 몰디브 끌어안기 '박차'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가 인도양의 이웃 섬나라 몰디브 끌어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 총리실은 2일 밤(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몰디브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약 1천300억원) 규모의 신용 대출 한도(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를 신규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안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자국을 방문 중인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몰디브 수도 말레와 주변 3개 섬을 다리와 독길 등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관련 화상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가 지원한 5억달러(약 6천500억원)로 진행되고 있다.

모디 총리와 솔리 대통령은 또 지난 대응,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해서도 6건의 협약 또는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인도는 2018년 11월 솔리 대통령이 집권하자 몰디브와 관계 개선에 각별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

몰디브는 인도와 전통적으로 항쟁에 가까운 우방이었으나 전임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관계가 다소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몰디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 거액을 빌린 바람에 엄청난 빚에 시달려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관광 의존도가 높은 몰디브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에 인도는 최근 여러 차례 몰디브에 자금 지원을 했고 코로나19 백신도 무상으로 제공, 중국 영향력 축소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모디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 권력서열 3위 펠로시 대만 방문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경 반발에도 결국 대만 땅을 밟았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킹드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중국은 즉각 대만을 포위하는 대대적 무력 시위를 예고함에 따라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신냉전'으로 불려온 미중관계는 단기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사진은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시의 입법원(의회)에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새 여권 '수난'...체코도 "인정 못해"

독일·스페인 이어 유럽서 3번째...“국제 규격에 맞지 않아”

유럽 내 국가들이 잇따라 베트남 새 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달 1일부터 걸면이 파란색으로 된 새로운 형태의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여권과 달리 출생지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ICAO 규정에 따르면 각 나라의 여권은 종류와 성명, 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만료 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발행국의 결정에 맡기지만 출생지 정보의 경우 모든 관련 이슈를 충분히 고려해 삭제 또는 기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베트남 독일대사

관은 출생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새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대사관도 지난 1일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녹색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자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EU 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에는 26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회원국에서 입국 비자를 받으면 권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공안부 소속 이민국은 새 여권이 국제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캐나다 성폭력 범죄 26년만에 최대

연 3만건 넘어...전년보다 18% 증가

지난해 캐나다에서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범죄가 2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일(현지시간) 연례 범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해 경찰에 신고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를 3만4천242건으로 집계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이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수준으로 1996년 이후 최대치다.

성폭력 범죄는 2020년 한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은데다 신고된 사건도 과소평가돼 처리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지적됐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주민

중 전년도에 성폭력 피해를 본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6%에 불과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통계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첫해 시행된 봉쇄 조치가 폐쇄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성폭력 범죄 신고를 더욱 꺼리게 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이후에는 봉쇄 완화와 함께 피해자 본인이나 제삼자 신고가 활발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캐나다에서 성폭력은 지난해 전체 폭력 범죄의 33%를 차지했다.

전체 폭력 범죄가 5% 증가한 가운데 살인이 788건으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적 영상 이미지 유포, 위협적 언사 등 괴롭힘 범죄가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요 범죄가 27% 증가하면서 주로 종교·성적 취향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코로나 급증에 日전문가들 “환자 전수 파악 중단”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20만명 안팎 발생하자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전날 코로나19 환자 전수 파악 중지 등을 담은 제언을 발표했다.

오미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자를 모두 확인하는 전수 파악을 재검토하고 입원환자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이들과 사망자만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건소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특정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분류

돼 있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는 환자를 전수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7파'(코로나19 일곱 번째 유행)가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정책을 수정하면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제7파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 A.5.7가 확산하면서 일본에서는 전날 21만 1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20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등 행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역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